

제목: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사야 49장 8-21절

하나님의 은혜는 대림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퍼부어 주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커서 전부 설명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1. 그 은혜로 내가 \_\_\_\_\_ 알게 하십니다. (8절)
2. 그 은혜로 나를 \_\_\_\_\_ 살리십니다. (9-10절)
3.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_\_\_\_\_ 살아가게 하십니다. (10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추수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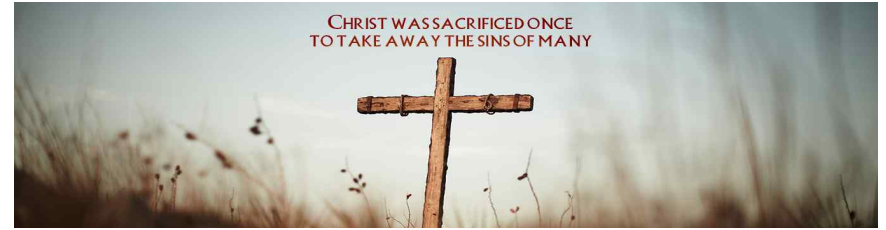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이사야 49장 8-21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Isaiah 49: 8-21 구약 1028 페이지 Presider
- 말씀 .....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예수 우리 왕이여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나를 확인한 월드컵)

4년 만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이 잘해서 16강에 넉넉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처음 2 경기는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결과를 얻어 한국 팀이 속한 조에서 꼴찌였다. 그래서 16강으로 가는 소망을 버렸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말인가? 기대하지 않았던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경기를 볼 수는 없었고 TV에서 나오는 잘 들리지 않는 광화문 중계를 애써 들으며 사람들의 큰 함성 소리를 듣고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던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내 자식도 아닌데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 내 자식이나 된 것 같이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왜일까? 왜 미국 팀이 경기할 때에는 그러한 감격과 열심 그리고 내 자식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내가 미국에 살아왔던 기간을 생각하니 40년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축구는 한국을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경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나의 속에서는 한국을 편들고 한국이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번 월드컵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일까? 내 마음이 좁아서일까? 아니면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로서 미국에 적응하지 못해서일까? 그런데 모두 아니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였고 내가 어려서 자란 문화적인 배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잘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영적인 고향의 문제이다. 이런 저런 일들을 세상에서 만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이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나의 인생임을 알게 된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을까?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또한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멀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천국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월드컵과 같은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응원하게 하고 확실하게 내가 누구임을 알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든다. 세상의 월드컵을 통해서 나의 누구임이 더욱 확실하게 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루의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치루면서 더욱 돈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대림절 시작

오늘부터 대림절을 지킵니다.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 6. 12월 계획

12월 17일(토) 정기당회 오전 8시

12월 25일(주) 성탄 주일 및 성탄절 예배

1월 1일(주) 신년예배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